

[사회]

■ 장애인 인식 개선 위한 ‘희망으로 콘서트’

텃빈 객석 메우고도 남은 용기와 의지의 ‘감동 선율’

신체적 장애와 사회 편견 등 온갖 역경을 극복해 낸 4명의 장애인 음악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광주에서 아주 특별한 공연을 가졌다.

28일 오후 광주교대 대강당에서 열린 ‘희망으로 콘서트’ 교육과학기술부와 광주시교육청이 주최한 이날 콘서트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장애인들에게 장애 극복 의지를 심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객석은 절반 정도 밖에 차지 않았지만 장애 음악인들이 풀어내는 열기로 금세 뜨거워졌다. 테너 황영택 씨, 클라리넷 연주자 이상재 교수, 가수 겸 방송인 박마루, 테너 김동현 교수. 이들의 이력은 이름 앞에 각종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특이하다.

황영택(42)씨는 국내 최초 휠체어를 타고 노래하는 테너 성악가다. 이날 공연에서 황씨는 “오 맑은 햇빛 너 참 아름답다”로 시작된 ‘오

솔레미오(Oh Solemio·나의 태양이여)’를 불러 관객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황씨는 1992년 크레인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되는 불행을 맞았지만, 아내의 박금주(39)씨의 도움으로 성결대 성악과를 진학했고, 10년 이상을 휠체어를 타고 무대를 오르고 있다.

황씨는 “단지 노래가 좋아 시작했고, 꼭 해야겠다는 생각에 이 자리에 오게 됐다”면서 “장애는 조금 불편할 뿐, 모두 이겨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재(41) 교수는 시각 장애인 최초로 미국 음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클라리넷 연주자다. 이 교수는 7살 때 교통사고를 당해 10살 때 시

력을 잃었다. 하지만, ‘집념’ 하나로 미국 유학 길에 올라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현재 나사렛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그는 클라리넷을 좋아했지만, 앞을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오케스트라에 들어갈 수 없어 교수의 길을 택했다. 이 교수는 “모두가 반대했고, 지

급도 누군가는 여러분을 막아서겠지만, 용기를 가지세요”라고 관객들에게 희망을 불어 넣어줬다.

테너 김동현(46)교수는 서울대 음대를 졸업하고 현재 성결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김 교수는 생후 10개월 때 미달이 문이 떨어져 오른팔을 다친 뒤 지금까지 오른팔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지체장애인이 됐다. 하지만, 사회적 편견과 장애를 뒤로하고 서울대에 당당히 합격해 주변을 놀라게 했다.

‘KBS 인간극장’을 통해 잘 알려진 가수 겸 방송인 박마루(43)씨는 어렸을 적 소아마비를 앓았다. 밖에는 무대에서 ‘거위의 꿈’을 노래해 장애인들에게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들 40대 장애인 음악인들에게 장애는 단지 작은 불편일 뿐이었고, 비장애인의 편견일 뿐이었다.

/인한주기자 ahj@kwangju.co.kr

중·고교 영어·수학 수준별 교과서 나온다

내년 1학기부터 사용

내년 1학기부터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을 위한 영어, 수학 두 과목의 수준별 교과서가 등장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중·고교의 수준별 이동수업 확대, 수업 내실화를 위해 중·고교생용 수준별 교과서를 처음으로 개발해 내년 1학기부터 사용하게 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영어, 수학 두 과목에 한해 개발된 수준별 교과서는 본 교과서 외에 별도로 사용하는 보조 교과서 형태로

각각 ‘영어 학습 활동책’(English Activities), ‘수학 익힘책’으로 불리게 된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제7차 교육과정 개정안에 따라 중학교 1학년, 고교 1학년이 사용 대상이며 교과부 검정용 물로 최종 검정되는 중1용 25종, 고1용 17종, 수학교은 중1용 27종, 고1용 18종이 개발됐다. 본 교과서가 해당 교과에 대한 일반적 수준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때문에 정형진술보고서의 일부 항목을 고려해 상·중·하 등 수준별

로 교과 내용을 수록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문제풀이의 경우 한 교과서 안에 난이도가 다양한 문제를 수록하고 상·중·하 등급을 문항에 표시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 수준에 맞게 문제를 골라 풀 수 있도록 했다. 교과부는 이 교과서가 일선 중·고에 보급되면 보통 상·하 또는 상·중·하 2~3단계로 나뉘어 실시되고 있는 수준별 이동수업의 교과서 활용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김치 담그는 강타

국방부가 건군 60주년 기념으로 만든 군 창작 뮤지컬 ‘마인’(Mine)에 출연한 인기 가수 강타가 29일 광주시 북구 향토음식박물관을 찾아 김치 담그기 체험을 하고 있다. 강타 옆은 배우 양동근. 뮤지컬 ‘마인’ 공연은 31일과 11월 1일 광주문화예술회관에서 두차례 열린다. /위정리기자 jrwi@kwangju.co.kr

“입 행구지 않은 음주 측정 무효”

광주지법 판결

물로 입 안을 행구지 않고 음주 측정할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믿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광주·전남에서도 처음으로 입 행구 없는 음주 측정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박현수 판사는 29일 혈중 알코올 농도 0.053%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약식 기소돼 정식재판을 청구한 류모(28)씨에 대해 “음주 측정 당시 단속 경찰관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물로 입 안을 행구게 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무죄를 선

고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술을 마신 지 10분 만에 음주 측정을 해 입 안에 남아있는 알코올로 인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수치가 혈중 알코올 농도보다 높을 수 있다는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이런 경우 물로 입 안을 행구도록 한 뒤 호흡 측정기 측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그런데 연말 특별 단속 기간이라 단속 대상이 많았던 점, 이 때문에 정형진술보고서의 일부 항목이 미리 작성돼 있었던 점 등으로 미뤄 류씨에게 입을 행구게 했다는 경찰관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권민기자 cki@kwangju.co.kr

복지 용구 비용 허위청구

공급업체 대표 검찰 고발

장기요양급여 수급 대상 노인들이 사용하는 복지용구를 공급하면서 비용을 허위청구한 업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이병식)는 29일 복지용구 급여비용을 허위청구한 광주시도 복지용구지정사업소 대표(55)를 광주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건보는 이 사업소가 올 7월부터 현재까지 노인들에게 공동활체어, 보행기 등 복지용구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복지용구를 제공하지 않거나 건보공단 단에 수량이나 가격을 부풀려 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2천100여만원의 가

내 마음은 언제 물들까 10월 30일

고기암의 영향을 받았고, 대체로 맑았다.

Table with weather forecasts for various regions including Seoul, Gyeonggi, and Jeonnam.



서해남부 앞바다=북서~북동풍 파고 0.5~1.0m 먼바다=북서~북동풍 파고 1.0~1.5m 남해서부 앞바다=북서~북동풍 파고 0.5~1.5m 먼바다=북서~북동풍 파고 0.5~1.5m

Table with daily weather forecasts for the week of Oct 31 to Nov 5.

중국산 과자 반가공품서 멜라민 검출

멜라민이 검출된 중국산 팽창제를 사용한 중국산 과자 반가공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멜라민이 검출된 중국산 탄산수소암모늄을 사용한 제품 27종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과자 반제품 ‘하스피’ 1건에서 멜라민 18.1ppm이 검출됐다고 29일 밝혔다. 멜라민이 검출된 하스피는 국내 화성제과공사가 중국 업체(Hebeilangfang Aolifa Grip)로부터 수입한 반

(半)제품으로 국내에서 과자 3종을 만드는 데 쓰였다. ‘멜라민 반제품’이 사용된 완제품 과자는 ‘킹구하스’ ‘중합김제리’ ‘백색 김강하스’ 등 3개 제품이다. 식약청은 3개 제품 가운데 유통기한이 2009년 2월 21일부터 2009년 10월 26일까지인 제품에 대해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긴급 회수명령을 내렸다. 앞서 20일 식약청은 과자 팽창제로 쓰이는 중국산 탄산수소암모늄에서 멜라민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

보수 성향 ‘자유교육연합’ 발족

전교조와 마찰 우려

사립학교법 폐지와 평준화 정책 보완을 주장하는 보수 성향의 교육단체가 발족하면서 진보 성향의 전교조와 마찰이 우려된다. 광주전남자유교육연합(상임대표 박용삼·송원대 교수)은 30일 오후 광주 무등파크호텔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교육 운동에 뛰어들 예정이다. 이날 총회에는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과 이주호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임병선 목포대 총장, 나규동 광주시 교총회장 등이 참석해 축사를 할 예정이다. 또 한성 디지털대학교 박법진 전 총장이 ‘자유교육 연합의 길’

이란 주제로, 이주호 전 수석은 ‘이명박 교육정책의 실천 방향’에 대해 특강을 할 예정이다. 광주전남자유교육연합은 현재 교수·교사·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중앙위원 70여명이 가입돼 있으며 총회를 통해 회원을 모집할 계획이다. 광주전남자유교육연합은 사립학교법을 폐지하고 사학진흥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과 평준화 정책에 대한 수정 등을 주장해 진보성향의 전교조와 반대의 논리를 펼치고 있다. 자유교육연합은 지난 2005년 창립된 이래, 대구·경북, 충남지부 등 6개 지부가 활동 중이다. /강병성기자 kps@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Asset Korea Real Estate, featuring contact information and a list of properties for sale with details like location, area, and price.

Advertisement for Daejin Solar, promoting solar water heaters and hot water systems, including contact info and product benefits.